

16/07/10(주) 주일예배 / 제목 :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마5:9)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알프레드 노벨(1833~1896, 국적 스웨덴)은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해 큰 갑부가 되었지만 말년에 자기가 발명한 다이내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신이 번 돈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주라며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했고 이것이 바로 노벨상이 되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부문에서 '지난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상을 주도록 명시한 유언장에 따라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190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2015년 작년까지 115회 시상식이 있었고 지금까지 900명 이상의 수상자가 나왔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권위를 가진 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벨상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인우월주의의 시각에 따라 그 수상자가 거의 구미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저항운동으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무려 다섯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지만 끝내 이 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의학상보다 노벨 평화상은 훨씬 기준이 모호해서 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고개를 가우뚱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만한 사람인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버락 오바마(1961~ / 2009년에 44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 합니다.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과연 노벨 평화상 감인가, 도대체 인류 평화를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말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느 신문은 노골적으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아무리 대단한 상이고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불공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벨 평화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상은 노벨 평화상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사위원이 되어 결정하고 주시는 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 평화상’ 감이다 하고 판단되면 주시는 상입니다. 게다가 권위는 노벨 평화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큼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입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는 스웨덴 돈으로 1000만 크로네인데 한국 돈으로 한산하면 약 16억 8천만 원이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상’ 수상자에게는 한 푼도 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다 되고자 합니다.

본론 /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1.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화평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평, 평화, 평안이라는 말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 고루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약 400회 가량 등장하면서 화평과 평화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어서 참된 평화를 심어주기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평화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그 외아들만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화평을 위해 기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eirenopoios)’인데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평화’(에이레네/eirene)란 말과 ‘만든다(포이에오/poieo)’는 이 두 말이 합쳐진 단어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에이레노포이오스’는 그대로 번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어

로 번역하면 피이스메이커(peacemaker)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peacemaker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peacemaker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잘 생겼든, 못 생겼든 상관없이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애는 누구 닮았어? 아빠 엄마 아무도 안 닮았네” 하면 부모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습니다. 반면에 “애는 아빠 꼭 닮았네, 애는 엄마 꼭 닮았네” 하면 아빠 엄마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반드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를 꼭 빼닮아서 세상의 평강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peace-maker가 되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1.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불화의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지극히 사소한 이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야기 됩니다. 나 혼자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나와 너란 존재가 대립될 때 문제가 됩니다.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키웠지만 사실 부모자식간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한 가족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이 세상은 어떨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전에 ‘~~화해는 나와 너~~’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남녀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다른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서로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잘 묘사한 드라마입니다. 사람들마다 성품과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쁜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가 나와 같지 않으면 용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도 나처럼 생각해라. 나처럼 생활 태도를 가져라. 나처럼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획일화된 삶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결코 화평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에 용납이 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貪欲]이라는 것은 사물을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인간의 품위를 하락시키고 타락하게 하며, 무질서나 남용을 초래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비람과 조카 롯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인들끼리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로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비좁고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한을 합니다. **(창 13:8~9)**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때 조카 롯은 얼씨구네! 하면서 그때 만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와 동산 같았기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툼도 없었고, 의가 상할 일도 없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생긴 불화가 아브라함의 양보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욕심 부리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치는 목자인지라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그 동네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다투지 아니할려고 아무 소리 안하고 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へ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다투지 않을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세 번 째 우물부터는 다투지 않게 되었고 그 뒤에도 우물을 팠을 때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억지주장을 하여 빼앗은 그랄 목자들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을려고 양보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상적인 탐욕을 버림으로 누렸던 귀한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 1.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불화의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인간관계의 문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있지 못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불편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신앙 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 나름대로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그 사람과 나와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파입니다.

넷째, 사람들끼리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나는 부모 형제와 잘 지내는데 부모끼리 혹은 형제끼리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도 잘 지내도록, 화평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속하는 곳마다 자꾸 나 때문에 복잡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긴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하는 곳마다 나를 통해 화평과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면 나는 진정한 peacemaker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1968년 출간)을 써서 유명해진 안희여사(1908~1997)의 글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1990년 출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의 문장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못생기고 얌전한 형제애를 품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없어요~~

~~화장품과 꾸민 거야 일때에 귀찮고 싫어하면 할 수 없어요~~

~~늘 웃고 순진하게 일하면 화를 피할 수 없어요~~

~~어제야 위 애처럼 내가 세게 거르면 할 수 있는 것만 못하잖아~~

~~생각은 똑같이 하면 생각은 똑같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해는 순한 해를 만는 순한 해~~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졌겠지!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지! 이해하고 기대하는 마음.

신뢰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지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결론핵심 :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시다.

요약정리 /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1.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불화의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